



블로킹을 피해서

지난달 31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열린 2007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월드컵대회 독일과 체코의 경기에서 독일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렌지 군단’ 넘어 亞정상 오른다

베어벡호, 내일 오후8시 네덜란드와 평가전

7월 아시안컵 대비 강팀 적응력 높이기 주력

한국 축구가 역대 아시안컵 본선 출전 사상 가장 강력한 평가전 상대를 넘어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의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7월7일~29일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펼쳐질 2007 아시안컵 본선 향해를 앞두고 닷을 올리는 일이다. 한국 축구는 2004년 7월 아시안컵에 앞서 바레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을 치렀다.

‘오만 쇼크’로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경질되고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막 임명했을 때였다. 결과는 바레인에 2-0 완승,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1-1 무승부.

중국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아시안컵 본선 성적표는 이란에 3-4로 지면서 8강에 그쳤다.

2000년 레바논대회를 앞둔 대표팀은 LG컵에 나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호주와 각각 맞붙었고 1-1 무승부와 4-2 승리로 감각을 조절했다.

1996년 박종환 사단이 이란에 2-6으로 참패하고 짐을 찢던 UAE 대회 직전에는 콜롬비아를 불러 4-1로 대승한 적이 있다. 1988년엔 아시안컵 개막에 앞서 일본 원정으로 한일 정기전을 치러 1-0으로 이겼다.

최근 네 차례 대회를 돌아보면 한국 축구는 아시안컵 장도에 오르기 앞서 대부분 ‘아시아 수준’에 맞는 평가전 상대를 골랐다.

이번에 부른 네덜란드는 아시안컵을 당면 목표로 삼았을 때 다소 ‘과한 적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베어벡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거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직전 잉글랜드, 프랑스와 평가전을 치러 세계

적 강호들에 대비한 ‘뺨집’을 기른 것과 같은 복안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 하다.

베어벡 감독이 히딩크호의 수석코치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당연한 이치다.

아시안컵 본선에 대비한 ‘맞춤형 평가전’은 6월29일 우즈베키스탄전, 7월5일 이라크전으로 이미 잡아 놓았다.

따라서 네덜란드전은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아시안컵 라인업의 윤곽을 그려보고 강팀에 대한 적응력을 다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부 멤버가 빠져지만 비교적 정예 멤버로 아시아 투어(한국, 태국)에 나섰다.

한국 축구는 47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한다.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국으로 아시아 축구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지만 아시안컵과는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지 못했다.

1984년 이후 아시안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만 번갈아 가며 세 차례씩 우승했다.

베어벡호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사우디를 만난다. 8강에 진출하고 나면 난쟁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오렌지군단과의 한 판은 베어벡호의 강인한 면역을 길러줄 제대로 된 ‘예방 접중’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 베어벡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번 네덜란드전에 이동국(미들즈브러)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축구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앞둔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한국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네덜란드 어떤 팀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는 축구 천재 요한 크루이프를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대회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토탈사커’라는 가히 혁명적인 경기운영으로 세계 축구를 흔들며 놓았다. 토탈사커는 네덜란드의 리누스 미헬스가 창안한 전술이다. 고정 포지션을 과파한 채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이후 토탈사커는 세계 축구의 주류가 됐다.

한국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 네덜란드식 토탈사커를 접목하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원조...FIFA 랭킹 6위

시도해 왔다.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고 이후에도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들이 연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며 체질을 바꿔놓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한국 51위)의 강호 네덜란드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극전사를 상대로 원조 토탈사커의 진수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 마르코 판 바스텐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는 몇몇 주전이 빠져있다고는 해도 정예나 다름없는 전력으로 방한했다.

네덜란드는 2008 유럽선수권대회 예선 조별리그

G조에서 무패행진(4승2무)으로 선두에 올라 있다. 한국으로서는 힘에 부치는 상대임에 틀림없다.

네덜란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4-3-3 포메이션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원톱에는 ‘제2의 뤼트 판 니스텔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세대 스트라이커 클라스 얀 훈텔라르(24,아약스)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2005-2006 시즌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인 훈텔라르는 A매치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8월 아일랜드와 친선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어 4-0 대승을 이끌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6월 세계는 ‘축구전쟁’

A매치 무려 172경기 예정

월드컵이 없어도 2007년 6월 세계축구는 뜨겁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6월(이하 현지시간) 예정된 A매치는 무려 172경기나 된다.

대진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에는 올라오지 않은 북중미-카리브해연맹(CONCACAF) 골드컵(미국) 8강 토너먼트 이후 7경기를 포함하면 179경기로 늘어난다.

친선경기 외에도 2008 유럽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08) 예선과 CONCACAF 골드컵(미국), 2008 아프리카

리카네이션스컵 예선, 남미선수권대회인 코파아메리카(베네수엘라) 등 굵직한 경기들이 6월에 몰려 있다.

최고 빅매치로 꼽히는 ‘축구중가’ 잉글랜드와 ‘삼바군단’ 브라질의 맞대결로 6월은 시작된다.

잉글랜드와 브라질은 1일(한국시간 2일 오전 4시)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친선경기를 갖는다. 종가의 축구 성지로 여겨지는 웬블리 스타디움이 새로 단장해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열리는 A매치다.

브라질은 잉글랜드전 후 6월5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터키와 한 차례 더 친선경기를 벌인다.

한국이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를 상대로 평가전을 갖는 2일 유럽은 벨기에-포르투갈(A조), 프랑스-우크라이나(B조), 덴마크-스웨덴(F조) 등 유로2008 예선 21경기를 쏟아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가 지난달 31일 LPGA 투어 긴 트리뷰트 대회 개막 하루전에 열린 프로암대회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미 “손목 부상 전화위복”

■ 내일 LPGA 긴 트리뷰트 출전

“충분한 휴식...통증없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손목 부상으로 1월 소니오픈 이후 약 6달 동안 공백을 가졌던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대회 출전을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손목 부상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1일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마운틴플레이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긴 트리뷰트에 출전하는 위성미는 “부상으로 인해 몇 개 대회를 놓쳤지만 골프는 앞으로도 계속 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면도 있다”고 대회에 나오지 않았던 6달 동안 생활을 소개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였는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위성미는 “또 이 부상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다. 결단력도 더 생겼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기뻐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손목 상태에 대해서는 “양쪽 손목이 다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통증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위성미는 “이번 대회 나올 수 있게 돼 기쁘다. 좋은 경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랜 공백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자신할 수 없다”면서 “대회에 나온 이상 목표는 높게 잡고 있다. 그러나 우선 워밍업 수준의 단계고 대회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나 소렌스탐이 여자골프의 상징이었는데 자신이 그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나는 그저 골프를 좋아하고 즐길 뿐”이라며 “다른 훌륭한 선수들이 더 많다”고 겸손해 했다.

위성미는 2006년12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해 오는 9월부터 이 학교 신입생이 된다.

한편 ‘위성미는 당분간 남자 대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위성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클래식에 출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타일을 구긴 코치 데이비드 레드베터는 이날 오하이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와 위성미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느라 분주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